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 크리스천이 기여해야

전영일(Asaph Young Chun) \ 인터뷰 김승욱

편집인 주: 전영일 박사는 지난 27년간 정부 보건부, 교육부, 상무부, 국립과학재단을 위하여 대규모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1996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 재무부 및 한국의 통일부가 승인한 국제전략화해재단(International Strategy & Reconciliation Foundation)의 원장을 맡고 있다. 이 재단에서 과학외교, 학제간 연구, 인도적인 국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분쟁해결에 대한 대안정책을 제시해왔다.

또한 그는 미국 국무부와 EU, 영국 및 한국정부에도 자문하고 있다. 지난 1996년~2015년 동안 북한 어린이, 산모, 장애인 치료를 위해 약 3천6백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의료보건 사업을 추진했고, 북한 여러지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그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의 R&D 부총장을 역임했고,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로버트 길루치 전 미국무부 북핵대사, 마크 커크 상원의원, 앤드류 나치오스 전 국무부 국제원조 처장 등 정부와 학계의 대북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동아시아 정세분석 및 대북정책제시를 위한 Washington North Korea Forum의 의장을 하고 있다.

김승욱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일 <월드뷰>의 취지가 참 좋고, 본지의 철학이나 생각에 매우 공감되어 응했습니다.

김승욱 부친께서 북한의 오산학교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집안 이야기를 좀 해 주시지요.

전영일 조부(전광조, 1899-1944)는 오산학교가 있는 평안북도 정주에서 사업가이자 교육가로서 일제하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셨습니다. 또한 학교와 교회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부친(전덕균, 1930-)께서는 오산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조부께서는 해방되기 1년 전 일제의 고문으로 옥사하셨습니다. 일경은 그 시신을 가족에게 내주지 않을 정도로 참혹했다고 합니다. 해방된 이후에는 기독교인이며 지주이기 때문

에 많은 박해를 받을 수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공산 치하 아래서도 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승욱 조부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가족의 슬픔이 컸겠습니다. 부친께서는요?

전영일 부친께서는 6.25 전쟁 중 혈혈단신으로 월남 하셨습니다. 신의주 사범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발령을 기다리는 중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신의주에서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로 가는 중에 북진해 오던 미군을 만났고,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겨 미군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미군 연대는 패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중에 두 명의 미군 병사의 목숨을 구해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30



여 년 동안 주한 미8군 지원단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 초기에 이제정 장로님(이태원 산정현 교회)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부친을 보시고는 큰 절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 일본강점기 때 저희 조부의 집에서 일하셨던 분이셨고, 그래서 부친의 모습을 한 번에 알아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제정 장로님 사위의 어머니이셨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이 분께 정착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3대에 걸쳐 태평양을 두고 펼쳐진 하나님의 드라마였습니다.

김승욱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요?

전영일 저는 그 후 미국 미시간 대학과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그리고 매릴랜드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특히 인문사회과학, 보건/의학, 경제/외교, 교육, 데이터 사이언스 등 학제간 연구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에 지난 25년간 전력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는 보수적인 기초 위에서, 학문으로는 실사구시적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미국의 국가정책 평가 및 개선 그리고 동아시아와 같은 분쟁지역에서 화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산정현교회를 통해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는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원에 다니던 중 아내를 만났습니다. (홍명주) 생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인생의 도전과 위기가 있을 때

언제나 마음을 터놓고 상의하는 첫번째 사람입니다. 지난 26년간 모든 사역을 내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식품의약품 FDA에서 일한지 15년이 넘습니다. 간염 치료약, 호흡기 질환치료제 등 주요 의약품 개발 승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승욱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R&D 부총장을 역임 하셨는데, 어떻게 동참하셨는지요?

전영일 1986년 시작한 북미유학생수련회(KOSTA) 첫 10년을 간사로 헌신했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연변과학기술대학에 뜻있는 유학생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변과기대를 설립한 김진경 총장님과 여러 지도자들과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평양과기대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 해에 평양에서 열린 <평양과기대 국제학술회의>에서 저는 의료보건 분야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포항공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박찬모 평양과기대 명예총장님과 긴밀하게 일했습니다. 저는 과학 외교(Science Diplomacy)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학자들과 함께 '평양국제학회'에 참여했어요. 과학외교라는 것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긴장으로 인해서 정부간의 접촉이 어려울 때 비정치적인 교육, 보건, 과학기술 등의 교류를 통해서 긴장과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해인 2012년에 평양과학기술대학원을 조직하여, 미국과 유럽의 11명의 저명한 국제 학자들을 PSI 교수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저는 학부생들에게는 조사방법론을, 대학원생들에게는 학제간 연구 방법론 및 연구기금 제안서 작성법을 가르쳤습니다. 현재 평양과기대에서는 정보통신, 농생명, 산업경영, 보건의료학 등 다양한 과학기술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과학 실력은 포항공대, 서울대,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들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김승욱 센서스국(Bureau of the Census)의 일을 설명해 주시지요.

전영일 미국 연방정부 인구통계청은 경제와 사람들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킵니다. 제가 있는 분야는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센서스 즉 전 인구조사를 합니다. 또한 매년 연방정부 및 주정부 예산 집행에 필요한 결정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American Community Survey를 진행합니다. 저는 연구실장으로서 국가정책에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합니다. 때로는 조사방법론이 개선될 수 있도록 냉정한 학문적인 비판을 해야하고, 때로는 예산 등의 부족으로 어떠한 차선의 선택을 현실적으로 해야할지를 제안합니다. 센서스 인구조사는 10년에 한 번씩 하지만, 이 일을 준비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곧 다가오는 2020년 미국 인구조사를 위해서 이미 2009년부터 다양한 연구들이 기획되고 진행되어왔습니다.

김승욱 서울대학교에서 5월 18일에 “북한 미래지도자들의 사회심리학적 자존감과 국제비교분석: 북한에서 처음 실시한 사회과학 서베이 연구” 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셨습니다.

전영일 제가 2012년 PSI 평양하계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북한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자존감에 (Self-esteem) 대한 설문조사에 기초한 연구 발표였습니다. 북한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과학적인 설문조사였습니다. 자존감은 개인의 내면세계와 행동양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존심과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자존감이 건강하면 자신의 의사 결정이나 행동에서 균형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이고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도 건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중의를 모아 신중한 결정을 해 권위적인 결정을 피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존감은 나라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건강한 자아상 형성에 필수적인 사회심리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이 북한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요인에 의해 북한 젊은이들의 자존감이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평양 주요 대학의 259명을 대상으로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53개국의 다른 나라 젊은이들의 자존감과 비교하였습니다. 첫번째 주요 결론은 북한 젊은이들의 자존감은 자신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국가들의 젊은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로, 북한 젊은이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해 본 결과 자신의 건강과 현재 전공분야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나왔습니다. 전공분야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나온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의 정도가 자존감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큼니다. 즉, 북한 젊은이들에게 육체적인 건강은 자신의 자존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번 결과는 북한 사회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증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데이터를 교육정책과 연계하는 한,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의 효용성을 북한 사회에서 실험적으로 증명한 첫 케이스입니다. 과학외교를 통해서 향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승욱 주제를 바꿔 햇볕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전영일 햇볕정책의 1기 김대중 정부, 2기 노무현 정부는 실험적 단계였다고 봅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북측이 교류 댓가로 미사일과 핵개발 등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고 워싱턴에서도 이 부분을 염려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8년 동안 북-미 관계는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북한에 대해 소위 의도적인 무시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바마 정부 8년간도 북-미 관계는 계속 소원했습니다. 전략적인 innate 정책은 사실 부시 행정부의 의도적인 무시정책과 대동소이합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시간을 벌었습니다. 군사우선 정책의 기초에 따라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전념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는 다급해졌습니다. 북핵의 성능은 이제 미국 본토를 위협

할 단계에 가까이 왔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이 지적은 데이터에 기초한 냉정한 판단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을 소형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과 미국시민들의 목숨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가 사정거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북한의 미분토 군사적 위협 역량에 관한 의견은 예전보다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햇볕정책 즉 포용정책이 시행되는 기간동안 적어도 군사적인 긴장과 충돌은 거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라는 비정치적 교류가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문화적인 교류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파생한 이익을 상대방이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김승욱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한 측면과 정권 유지에 활용한 효과 중에 어떤 것이 더 컸을까요? 남한에서도 시각이 다양합니다. 햇볕 정책이 아니었으면, 전쟁이 일어났을까? 햇볕정책으로 동서독처럼 해빙무드로 갔다면 선샤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관광객 살해하고 사과도 안 하고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그러니 선샤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영일 워싱턴에서도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가 햇볕정책만을 고집한다면 트럼프정부 누구로부터도 지지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상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 통계자료를 통해 지난 20년간 어느 정도 규모의 현금과 현물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샤인 정책에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파급효과 중의 하나가 북한 사회에서 확장되어가고 있는 장마당입니다. 개인에게 가는 이익을 정책적으로 증진시켜서 북한사람들의 경제적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등 경제 교류를 통해 북측 사람들이 남측 사람들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도자층에서는 '남한이 했다면, 우리도 해 보자.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은 우리도 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그런 프레임을 일찍 택했다면 북한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었을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다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겠지요. 어쩌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선샤인 3.0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샤인 정책이라는 용어는 워싱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대통령의 성을 딴 문샤인은 (Moonshine)은 영어표현으로 아주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제가 뒷거래 또는 밀주 등을 지적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이미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과 정치적으로 적합한 용어가 필요합니다. 하버드대학 케니디 스쿨 조우 나이(Joseph Nye) 교수의 '스마트 파워'라는 전략이 한국과 미국이 공유할 수 있는 대북정책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승욱 스마트 파워의 개념을 가지고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정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전영일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버드대학의 나이 교수가 언급한 소프트 파워는 당근에 비유되고, 하드 파워는 채찍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외교, 문화, 교육, 과학등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설득과 유인을 통해 정치적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파워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라는 말입니다. 하드파워는 강압과 응징을 앞세운 것으로 경제적인 제재조치, 사드배치, 대량살상무기 사용 등 군사적인 억지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이 교수가 이 개념을 처음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한반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국무부, 국방부의 고위관리로서 지도력을 발휘했고 동시에 학자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사실 미국무부는 소프트 파워를 개발, 실행하는 곳이고, 미 국방성은 대개 하드 파워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이 교수는 첨예한 국제 분쟁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두 기관이 전략적으로 협력하여서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겸비한 스마트파워를 활용할 것을 제시합니다. 곧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대북문제에 관한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스마트 파워를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김승욱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공격이나 김정은 제거 카드를 언급하다가, 또 김정은을 직접 만나겠다는 발언도 하는데, 바로 소프트 파워와 하드파워를 염두에 두고 두 가지를 교대로 언급한 것이군요.

전영일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정권에서 사용하던 스마트 파워라는 용어 사용을 꺼려했을 뿐이지요.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은 북한 사회는 지도자가 바뀌면 북한이 바뀔거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편견입니다. 북한은 어느 한 개인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군사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집단주의 사회입니다. 김일성 수령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으면 북한은 자멸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했습니다. 특히 정치학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회는 존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부만 바꾸면 북핵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 사회는 전체의 이익을 공유하는 확고한 군사 우선정책 사회이고, 그 사회적 내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만, 북한은 확고한 군사 우선 정책에 기초하여 지난 70년간 지도자는 세 번 바뀌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북한 사회는 외부의 압력과 무력에 의해 와해되거나 내부의 혼란에 의해 붕괴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관찰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예측에 plus/minus 5%의 오차 가능성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회과학자는 확실성을 주장해서는 안되니까요.

김승욱 김정은의 숙청으로 인해서 북한 군부 내 충성도가 약해져,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고 하는 예측들이 틀렸군요.

전영일 그렇습니다. 그러한 붕괴론을 거듭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적 정부이고, 트럼프 정부는 보수 정부입니다. 정책 기초가 완전히 다르지만, 양국 대북정책의 현재 핵심을 보면 비슷한 정책을 펼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즉 최강의 압력과 포용이라는 대북정책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제재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표현이 다를뿐이지 두 정책의 핵심은 스마트 파워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기초하여 지난 70년간 지도자는 세 번 바뀌어도 사지 70년간 지도자는 세 번 바뀌어도 사회 제도와 문화는 일관성 있고 내재적인 공고성이 있는 사회입니다. 북한사회는 외부의 압력과 무력에 의해 와해되거나 내부의 혼란에 의해 붕괴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에 plus/minus 5%의 오차 가능성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회과학자는 확실성을 주장해서는 안되니까요.

김승욱 최근에 김정은이 주요 군 수뇌부를 상당히 많이 숙청했는데, 이로 인해서 북한 군부 내 충성도가 약해질 것이라고 추측하거나, 그로 인해서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는 예측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체제 안정성과 관련이 없군요.

전영일 그렇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사실 미래예측에 가장 부정확한 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붕괴론을 거듭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스럽습니다. 하드파워와 소프트 파워, 그리고 스마트 파워의 관계에 대해서 추언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워싱턴의 트럼프 행정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진보적 정부이고,

다른 하나는 보수적 정부입니다.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다른 정부가 들어섰지만, 양국 대북정책의 현재 핵심을 보면 비슷한 정책을 펼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모두 시작된지 얼마 안되어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1년은 관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의 트럼프 정부는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즉 최강의 압력과 포용이라는 대북정책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제재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두 정책의 핵심은 스마트 파워입니다. 즉 외교, 대화, 경협, 교류 등으로 실행 될 수 있는 소프트 파워 그리고 강력한 경제제재, 군사적인 대처로 실현될 수 있는 하드 파워 이 두 가지의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겠다는 것이 워싱턴과 서울의 현재 대북정책입니다. 바로 스마트 파워라는 공감된 전략입니다.

김승욱 한미가 서로 보조를 맞출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사실 박근혜 전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서 미국이 놀랐다고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드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정도를 평가하는 시금석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일 이 문제는 여러 변수가 있어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북정책 문제에 있어서 “차이나 팩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드문제나 박근혜 전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그 자체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서울이 정말 주체적으로 워싱턴과 베이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냐 하는가가 관건입니다. 평양이 워싱턴과 베이징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에서 타산지식의 교훈을 배울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워싱턴, 베이징 양측은 물론 도쿄, 모스크바 심지어 베를린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에는 서울이 베이징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들도 중국의 도움을 받는데,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용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베를린 카드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

아입니다.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나라, 주변국의 정치군사적 이익과 상충관계를 동서 베를린의 통합으로 변혁시킨 지혜와 전략 말입니다.

김승욱 워싱턴은 결국 아시아에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동맹국은 일본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던데, 한국도 일본처럼 확실하게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만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안보를 지키는 방법이 아닌가요? 한중간의 어설픈 대화는 더욱 문제를 꼬이게 하고,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영일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독 통합 과정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독일 통합 전후의 과정을 비교적 가까운데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주 그 나라를 갑니다. 물리적 통합 후 동서독인 사이의 내면적 화해의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요. 역사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한반도의 현실에 관련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서독의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이 통합의 역할분담을 비교적 균형있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화해/통합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정책의 지속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더구나 독일의 경우 빌리 브란트 수상이 시도한 동방정책의 핵심은 그 후에 서독 정권의 성격이 바뀌어도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협력의 모든 비군사적인 분야를 통해서 동서독간에 접근해가는 ‘화해 과정’을 만들어 가면서 말입니다. 동서독의 내부적인 합의와 존중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변국 고유의 이익과 불신을 제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소의 군사적 정치적 이익은 양국간의 군축과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서 주변환경이 독일 통합에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운이라고 할까요? 독일 통합 과정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향후 정권의 변화가 어떻게 되든지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제1기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제2기 햇볕정책, 그

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서 배운 교훈을 통합해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을 넘어서 향후 20-30년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 지속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정권에 상관없이 코어로 유지해야 할 대북정책의 근간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에 기초한 신통북아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정부에서 보수와 진보 지도자들을 통합적으로 참여시켜 시작한 <통일준비위원회>를 건설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 목록물은 바꾸더라도 목록하는 어린 아이 마저 버려서는 안되지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통준위와 같은 정부/민간 통합의 도구를 통해서 독일통합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진취적으로, 주취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승욱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통일과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지켜야 할 핵심을 발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역할은 국민들이 해야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전영일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보수와 진보의 정부를 넘어서서 항구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북정책과 화해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 한 가운데서 말입니다. 먼저 말씀 드린 통준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말입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남북 화해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있는 전문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홀로 1980년대 말 독일에 가서 통일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까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비텐베르그, 드레스덴, 라이프치히에 내려가서 독일인들의 생각과 실천을 배웠습니다. 북쪽 사람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대기근과 거듭된 수해로 수많은 목숨들이 위태할 때 나는 그 현장에서 미국인들과 유럽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이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는 북쪽의 젊은이들에게 정치와 무관하게 그저 가르치기만 했습니다. 국

제전략화해연구원을 21년 전에 워싱턴에서 출범한 것은 국내외의 뜻있는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분단코리아의 신화를 깨뜨리기 위한 체계적인 발돋움이었습니다. 학제간 연구에 기초한 분쟁해결과 정책대안, 인도적인 구호사업, 과학외교를 통해서 말입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다음 세대 화해의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해 세계의 젊은이들과 더욱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멘토링을 합니다. 함께 연구 논문을 씁니다. 함께 국제학회에서 발표합니다. 국적에 불문하고 함께 북한의 현장에서 일하고 가르칩니다. 북한 속담에 친척히 가는 소가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북한의 화해는 그렇게 올 것 같습니다. 멀리 가려면 높이 날아서 함께 가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필사즉생(必死即生) 죽기를 각오하면 살게 됩니다. 남북한 화해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내 아내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남해로 내려가서 한번 노랑 앞바다에 발을 담가보십시오.

김승욱 그렇지요. 일부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물론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는데, 전박 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준비하지 않고 요행만 바란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 비전으로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 와 닿습니다. 오늘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